

【논 문】

만주국의 선전전과 라디오 방송

강 희 주*

┌ 차 례 ─┐

1. 머리말
2. 만주국의 선전정책과 라디오 사업의 전개
 - 1) 만철·만주국의 선전정책과 라디오
 - 2) 만주전전의 설립과 라디오 방송의 전개
3. 만주국의 방송보급과 ‘만주문화’의 모색
 - 1) 만주전전의 청취자 확대 사업
 - 2) 다언어 방송과 만주문화의 모색
4. ‘대동아방송권(大東亞放送圈)’과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
 - 1) 전파 네트워크의 구축: 연락·교환(交驛)방송
 - 2) 동아중계방송과 ‘대동아방송권’의 구상
5. 맺음말

국문초록

본 논문은 만주국의 국민국가 형성과 제국 질서의 강화라는 측면에서 만주국 라디오 방송의 전개 과정과 의미를 고찰하고자 한 시도이다. 20세기 전반은 국가의 통제 아래 라디오가 국민의 창출에 적극적으로 이바지했던 시기였다. 만주국에서도 제국 일본의 하위 구성원이자 독립적인 국민국가라는 상반된 정체성을 동시에 가진 ‘만주국 국민’을 만들어내기 위한 도구로 라디오가 크게 주목을 받았다. 따라서 만주국의 라디오 산업은 국가와 제국의 논리가 일상에 침투하여 국민 정체성을 인위적으로 형성하는 과정을 명료하게 드러내는 사례가 될 것이다.

* 연세대학교 대학원 사학과 석사졸업

만주국 선전·선무의 역사는 남만주철도공사 시기 철도 및 부속 지역의 안정적인 지배를 위한 정보수집 및 선전 활동에서 시작되었다. 1932년 독립국가로 건립된 만주국은 괴뢰국의 이미지를 불식하고 국민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재확인하기 위해 대내외적으로 선전활동에 주력하였다. 특히 중일 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총력전 체제를 뒷받침할 국민의 창출이 더욱 시급해졌다. 여기서 만주국은 지리적·계층적 경계를 뛰어넘는 월경성과 전파의 동시성이라는 라디오의 특징에 주목하였다.

만주의 라디오 방송은 관동주에서 시작되어, 만주국이 건립된 이후에는 수도 신징으로 방송의 중심이 옮겨 갔다. 1933년 국책회사인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가 설립되자 본격적인 방송사업이 전개되었다. 1934년에는 만주국과 관동주 전체를 하나의 방송권으로 묶을 수 있는 100kW 대출력 방송국이 신징에 건설되어, 중국어를 비롯한 기타 언어와 일본어의 이중방송이 가능해졌다. 이와 같은 기술적 토대와 만주국 정부의 지도 아래 만주전전은 프로그램의 제작 및 송신과 수신기 보급 사업을 전개하였다.

선전도구로서 라디오가 제 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 가장 먼저 달성되어야 할 조건은 수신기의 보급이었다. 만주전전은 염가의 전전형(電電型) 수신기를 개발하고 이를 직접 판매하는 사업까지 담당하여 적극적으로 수신기 보급 활동을 벌였으며, 청취 계약의 증가에 힘을 기울였다. 이와 같은 만주전전의 라디오 보급사업은 전파를 통해 국가의 경계를 명시하고 내부의 구성원들을 하나로 묶는 ‘국가 만들기’ 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라디오 보급 사업의 중심 대상은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滿系) 주민이었다. 중국계 주민들은 가장 많은 (잠재적) 청취자인 동시에, 만주국이 창출하고자 하였던 ‘만주문화’의 주역이라는 점에서도 방송이 반드시 포섭해야 할 집단이었다. ‘만주문화’는 만주국이 독립국으로서의 자기 정당성을 획득하기 위해 필요로 했던 독자적인 대중문화로, 만주국을 구성하는 다양한 민족들을 아우르면서도 일본이나 중국과는 다른 문화여야 했다. 만주전전은 ‘만주문화’를 방송전파 위에서 실현하기 위해 중국어 프로그램의 제작에 힘을 기울이고, 각 지역별로 러시아어, 조선어 등을 중심으로 하는 다언어 방송정책을 펼쳤다. 이와 더불어 전통음악기록사업 등을 통해 ‘만주문화’의 내용을 채울 ‘만주적인 것’을 모색하였다. 그러나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에서 일본인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화와 구별되는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오히려 ‘만주문화’의 모색 과정은 제국 질서 안에 존재하는 독립국가 만주국의 딜레마를 뚜렷이 보여주는 사례가 되었다.

방송보급사업이 대내적인 ‘국가 만들기’사업이었다면, 조선·대만 등의 식민지와 화북지역 괴뢰정권과의 연계 사업은 제국의 판도를 청각을 통해 나타낸다는 점에서 대외적인 ‘제국 만들기’사업이라고 할 수 있다. 만주전

전의 대외 방송교류사업에는 제국 일본의 영역을 청취자들에게 감각적으로 인식시키는 동시에 제국의 근간인 일본(인)의 우위를 확립한다는 두 가지 과제가 주어졌다. 1941년 이전에는 내지(일본), 중국(북북), 조선 등지와 활발한 교환방송이 이루어졌다. 이들 지역과의 정례교환방송은 강연 프로그램이 중심이 되었으나, 임시교환방송에서는 음악 등 연예 프로그램이 중요시되기도 하였다. 또한 ‘만주문화 모색’이라는 측면에서 대내적으로 중국계 주민들에 대한 방송보급이 중시되었듯이, 대외적인 방송교류사업에서는 화북 지방정권과의 교류가 중시되었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본격화된 1941년 이후에는 제국 일본의 판도 전체를 잇는 방송 네트워크인 ‘대동아방송권’이 구상되었다. 이는 일본·만주·화북의 연계를 근간으로 식민지와 남양 군도 전체를 포함하는 개념이었다. ‘대동아방송권’의 실현을 위해, 내지의 지도 아래 각 지역의 방송국은 적극적으로 연계하여 교환방송은 물론 기술적 협력에 진력하였다. 만주전전은 ‘대동아방송권’의 일원으로서 동아전기통신협회에 참가하였으며, 일본방송협회(NHK)가 주도하는 ‘동아교환방송’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다. 미국과의 개전 이후에 더욱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던 ‘동아교환방송’은 남양군도를 포함한 각 지역이 긴밀히 연계·협력하는 모습을 선전하는 동시에 네트워크의 정점에 있는 일본의 존재를 확고히 하는 것이었다. 비록 시간적·기술적 문제 때문에 그 이상을 충분히 실현하지는 못하였으나, ‘대동아방송권’은 ‘동아신질서’가 방송전파의 차원에서 실현된 모습이었다.

결과적으로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대내적인 보급사업에서도 대외적인 교류사업에서도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한 채 패전을 맞이하였다. 그러나 ‘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북방민족국가 만주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었는지를 생각한다면, 송신자(만주전전)와 청취자, 그리고 국가가 서로 뒤엎었던 만주국 라디오라는 공간을 통해 20세기 전반 국민국가와 제국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단면을 볼 수 있다.

주제어 : 만주국, 라디오 방송, 만주전신전화주식회사, 선전전, 총력전, 이중 방송, 만주문화, 대동아방송권, 동아교환방송

1. 머리말

www.kci.go.kr

20세기 전반은 라디오의 시대였다. 전파와 청각을 매개로 하는 라디오는

시간과 공간의 경계를 넘어 모든 청취자에게 평등하게 도달할 수 있다. 이와 같은 라디오의 월경성(越境性)과 동시성 때문에 청취자들은 공간과 계층을 초월하여 동일한 정보를 수신하는 하나의 거대한 집단인 국가나 민족의 일원으로 스스로를 인식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1920-40년대 들어 라디오는 국가의 강력한 통제 아래서 ‘대중의 국민화’¹⁾에 적극적으로 참가하며 ‘라디오의 시대’를 구가하였다.²⁾

일본에서도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제국의 형성에 라디오가 대내외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³⁾ 일본 제국의 판도 안에서 특히 만주국의 라디오 산업은 정치권력, 더 넓게는 국가와 제국의 논리가 일상에 침투하고 대중문화를 재편하는 과정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사례이다. 만주국은 일본 제국의 하위 구성원인 동시에 20년대 이후 민족자결주의의 유행에 따라 건국된 독립국가라는 특수성을 가지고 있었다. 1932년 수립된 신생국가 만주국은 그 구성원이 될 ‘국민’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시급했다. 여기서 물리적·시간적 장벽에 구애받지 않는 라디오는 ‘만주국인’이라는 아이덴티티를 생산하기에 유리한 도구로 주목받았다. 따라서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20세기 근대

-
- 1) 조지 L. 모스 지음, 임지현, 김지혜 옮김, 2008, 『대중의 국민화-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소나무.
 - 2) 제2차 세계대전을 전후한 시기 대표적인 미디어 효과 이론은 탄환효과 혹은 피하주사 이론이라고 불리는 대효과이론으로, 미디어에서 전달되는 메시지가 수용자에게 즉각적이고 절대적인 영향력을 가진다고 생각되었다. 대중매체의 효과 이론의 발달 과정에 대해서는 강준만,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개마고원, 1997, 제2장 참조.
 - 3) 사토오 타쿠미(佐藤卓己)는 이와 같이 대중의 일상 속으로 침투해간 라디오가 파시즘의 근간이 되는 대중적 합의를 형성하는 데 일조했다고 보고 있으며, 이러한 대중적 합의를 ‘파시스트적 공공성(ファシストの公共性)’으로 정의하고 있다. 아직 기록 장치가 보급되지 않았던 1930년대에 라디오는 한번 송신된 내용을 다시 재생하기 어려운 흐름(flow)의 매체였으며, 따라서 정보의 정확성보다는 음성이 전하는 느낌을 통해 수용자들에게 정서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경향이 강했다. 이러한 라디오의 영향력은 공감대의 형성에 의한 합의에 기초하는 파시즘 체제에 가장 적합한 미디어 환경을 형성하였다. 佐藤卓己, 2006, 『ラジオ文明とファシストの公共性』, 實志俊彦, 川島眞, 孫安石, 『戦争・ラジオ・記憶』, 勉誠出版, 13~16쪽.

국가의 ‘국민 만들기’ 과정이 가지고 있었던 작위성이 명확하게 드러나는 지점이기도 하다.

이처럼 1920~30년대 일본 제국에서의 대중사회의 형성과 국민의 형성, 총동원체제 등과 라디오가 중요한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는 1990년대에 들어서야 시작되었다. 최근 들어서는 라디오는 매체를 제국사의 시점에서 종합적으로 다루고자 하는 시도가 나타나고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주목할 만한 성과로는, 라디오 산업 전반과 그 권력, 공공성의 개념, 전쟁, 제국 등 근대사회를 규정할 수 있는 요소들과의 관계를 폭넓게 고찰한 『전쟁·라디오·기억』⁴⁾ 등이 있다.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 연구 또한 이러한 일본 제국과 라디오 연구라는 큰 테마의 일환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만주국이 ‘괴뢰국’이라는 일면적인 규정에서 벗어나 일본 제국의 네트워크 안에 존재하는 독립국가로서 ‘국민 만들기’와 ‘국가 만들기’의 주체로 새롭게 조명되면서, 이와 긴밀히 연결되는 만주국의 미디어 정책에 대한 관심은 점차 고조되고 있다. 이와 같은 연구성과는 아직 소수에 불과하나, 제국사의 각도에서 만주국의 ‘국민 만들기’에 대한 중요한 문제제기가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연구에 중요한 시사점을 던져 주고 있다. 이러한 연구성과에 비추어, 이 논문은 기존에 제기된 문제의식을 발전·심화시키기 위해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점에 입각하여 논의를 전개하고자 한다.

첫 번째로, 라디오 방송이 국가의 강력한 영향력 아래 발달한 것은 일반적인 경향이지만, 특히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을 논할 때에는 국가의 존재가 더욱 부각되어 나타난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같은 일본 제국의 판도 내에 있는 조선·대만 등의 식민지와는 달리 만주국은 제1차세계대전 이후 반제

4) 貴志俊彦, 川島眞, 孫安石, 2006, 『戦争・ラジオ・記憶』, 勉誠出版.

국주의적 내셔널리즘의 산물이었던 ‘독립국가’였기 때문에, 국가와 국민의 형성이라는 독자적인 과제가 있었다.⁵⁾ 만주국 그 자체를 국가 만들기의 과정 즉 ‘국가효과’⁶⁾라고 해석할 때, 라디오는 그 핵심 중 하나인 국민 만들기의 중요한 도구였다. 따라서 라디오 방송을 분석할 때, 만주국이 어떠한 국민을 어떻게 창조하고자 하였는가를 염두에 두고자 한다.

두 번째로, 만주국이 제국 일본의 영향력 아래 수립되고 총력전에 적극적으로 참가하였던 만큼,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이 제국의 네트워크의 일원으로서 가졌던 의미를 고찰해 볼 필요가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다른 식민지 지역과의 교류와 연계 사업이야말로 제국의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측면에서 만주국 라디오의 핵심적인 대외사업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선전정책의 발신지로서 본국 일본(내지)과의 관계도 네트워크의 중요한 연결고리로 파악되어야 할 것이다. 다만 일본과의 관계에서는, 제국의 하위 구성원으로서의 만주국을 고려하되 본국과 식민지의 일방적 관계가 아닌 쌍방향성을 염두에 두면서 분석을 진행할 필요가 있었다.

이러한 부분에 주목하여 이 논문에서는 라디오 정책의 수립, 방송이 생산되고 소비되는 맥락을 중점적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다만, 만주국 라디오 방송의 전모를 밝히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그 내용을 채웠던 콘텐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이 함께 진행되어야 하지만, 이 논문에서는 사료의 제약으로 방송의 구체적인 내용을 직접 확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있었다. 방송 내용을 직접 확인할 수 있는 자료로는 당시 방송을 녹음한 녹음반의 일부가 중국

5) 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2008,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51~57쪽.

6) 한석정, 2007, 『만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동아대학교 출판부. 이 책에서 국가는 사회 속에 자신의 존재감을 획득하는 ‘과정’을 필요로 하는, 따라서 확고한 실체라기보다는 ‘효과(state effect)’로서 이해된다. 한석정은 만주국이 스스로 국가임을 각인시키고자 벌인 활동을 군대, 관료제, 복지정책 그리고 (그 중심에 황제 푸이(溥儀)가 있는) ‘만주국민’의 형성 노력이라는 측면으로 나누어 보고 있다.

지린(吉林)성 당안관(檔案館)에 보존되어 있으나, 현재 이 자료는 일반에 공개되어 있지 않다.⁷⁾ 때문에 『만주일일신문(滿洲日日新聞)』~혹은 『만주방송연감(滿洲放送年鑑)』~등에 실린 편성표나 소수의 프로그램 요약 기사 등을 통해 간접적으로 내용을 확인할 수밖에 없는데, 이마저도 프로그램의 구체적 내용을 분석하기에는 충분치 못하였다. 따라서 이 논문에서는 프로그램이나 편성과 같은 콘텐츠에 대한 분석보다는 먼저 선전 당국자들의 사업 구상이나 라디오 정책과 같은 미디어 외적 환경과, 미디어 자체의 생산과 소비의 맥락을 간접적으로 밝히는 데 초점을 맞추고자 한다.

이 논문에서 주로 사용된 자료는 『만주방송연감』, 『선무월보(宣撫月報)』, 그리고 『전전(電電)』이다. 먼저 방송 사업을 총괄하였던 만주전선전화주식회사(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 이하 만주전전)에서 발간된 『만주방송연감』은 각종 통계자료를 비롯하여 만주국 라디오 방송 연구의 기초 자료이다.⁸⁾ 『선무월보』는 만주국의 선전 관련 정책 및 정보가 총망라된 월간지로, 외부만출이 금지된 관내 잡지였기 때문에 선전정책에 관한 내용이 가감 없이 서술되어 있다.⁹⁾ 또한 『전전』은 만주전전의 사내 잡지로서 『선무월보』와 함께

7) 이 녹음반에는 1940~1945년의 방송 내용 중 약 220시간 분량이 보존되어 있다. 녹음반에 대한 상세한 해설은 野村優夫, 「吉林省檔案館 滿洲國ラジオ錄音盤」, 貴志俊彦, 川島眞, 孫安石, 앞의 책, 304~306쪽 참조.

8) 滿洲電信電話株式會社, 『滿洲放送年鑑』, 1939~1940 : 1940년과 1941년에 각각 발간되었으며, 1940년 발간된 『昭和十四年 慶徳六年 滿洲放送年鑑』에는 만주전전 창립 전부터 1938년까지의 역사를 포함한 내용이 정리되어 있다. 이 책에는 만주국의 사업 전반에 대한 개괄부터 프로그램 편성과 각 연도별·분야별 프로그램의 내용, 청취자의 기호조사 일부와 방송설비, 그리고 1980년 NHK에서 정리한 『外地放送史資料』에도 실려 있지 않았던 만주전전 조직 구조의 변화까지도 상세히 기록되어 있다. 특히 항목별로 상세하게 나뉘어 있는 청취자 조사가 실려 있는 ‘청취자란(聽取者欄)’은 수신자측에 관련된 자료가 부족한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을 고찰하는 데 있어서 귀중한 자료가 될 것이다.

9) 中央宣撫小委員會(→國務院總務庁弘報處), 『宣撫月報』, 1937~1942(山本武利 解説, 2006~2007,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 補卷25, 不二出版) 매월 300페이지에 달하는 방대한 양의 선전정보가 게재되어 있으며, 방송과 영화를 비롯한 각 미디어에 대한 논의는 물론 1930년대 후반부터 내지에서는 접하기 어려웠던 영미 학자들의 선전이론이 소개되는 등 학

구체적인 정책시행 및 만주전전의 사업 양상을 파악할 수 있는 자료이다.¹⁰⁾

2. 만주국의 선전정책과 라디오 사업의 전개

1) 만철·만주국의 선전정책과 라디오

만주국 선전·선무의 역사는 남만주철도주식회사(南滿州鐵道株式會社, 이하 만철)로부터 시작된다. 만철은 일찍부터 PR과 선전을 전담하는 부서인 홍보계(弘報係)를 설치하였으며, 철도경무국 애로과(鐵道警務局愛路課)가 철도부속지역의 치안 유지를 위한 선전 활동을 전담하였다. 만철 사원들이 직접 나서 선전활동을 벌이는 모습은 그대로 ‘선전국가’ 만주국을 연상시키기에 충분한 것이었다.

만주국이 수립된 이후의 선전정책에서는 ‘괴뢰국’의 이미지를 불식하는 것이 급선무였다. 만주국은 군사행동으로 탄생한 국가라는 태생적인 부담을 안고 있었기 때문에, 안팎으로 끊임없이 국가로서의 정당성을 재확인할 필요가 있었다. 또한 당시 내지는 물론 전세계적으로 대중매체를 활용한 선전전이 주목을 받고 있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 배경 아래서, 만주국은 만철

술적인 측면에서도 주목할 만한 서술이 많다. 2005년 복각되어 미디어 정책 연구에서 중요한 참고·인용 자료가 되고 있다.

10) 電氣俱樂部(→電電一心會), 1941~1944, 『電電』7 滿州電信電話株式會社, 1944~1945, 『滿州の電氣通信』, 1938년, 만주전전의 사원 조직인 전전클럽(電々俱樂部, 이후 전전일심회(電電一心會)로 개칭)이 만주전전 사원들을 독자로 상징하고 창간한 잡지. 당초 이 잡지는 만주전전의 사원 복지 및 문화운동의 일환으로 발간되었으며, 매달 2000부 이상이 일본으로 기증되어 만주전전의 활동을 알리는 활동에도 사용되었다. 『전전』은 매달 100페이지에 가까운 분량이 간행되었으며, 그 내용 또한 매우 다양하여 거의 소규모의 종합잡지에 견줄 수 있었다. 또한 1942년 이후의 일부 호에는 ‘滿文版電電’이 첨부되었다. 1944년에는 제목이 『滿州の電氣通信』으로 바뀌었고, 발행처도 전전일심회에서 만주전전이 되었다. 이 시기에 이르러서는 사원 복지 차원의 종합잡지에 가까운 성격에서 사원들을 대상으로 하는 선전 및 교육을 가장 큰 목적으로 하는 잡지로 변모하였다.

의 선전·선무 경험과 내지, 조선 등지에서 방송을 통해 쌓은 노하우를 토대로 국가가 대중매체에 대한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는 선전전의 실험과 실천의 장이 되었다.

만주국 설립 후의 선전은 정보전달 및 주민들의 협력 유도라는 일차적인 목적 외에도 국민의 창출이라는 중요한 과제가 주어졌다. 만주국은 넓은 지역에서 서로 다른 언어와 문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다양한 집단 위에 국가라는 틀이 덧씌워진 ‘복합민족국가’였다. 이러한 다양한 구성원들을 국민으로 재편해 나가는 과정에서 필요한 것은 바로 공통의 감각, 혹은 감정적 차원에서의 일체감이었다.

여기서 주목을 받은 것이 라디오였다. 높은 문맹률이 장벽이 되었던 인쇄매체나 시·공간적 제약이 있는 영화에 비하여, 넓은 공간에 동시에 같은 내용을 송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라디오는 ‘감각’ 차원에서의 공간적 일체감을 형성하는 데 강점을 가지고 있었다.¹¹⁾ 또한 라디오는 매체의 특성상, 방송 내용보다도 방송 자체가 주는 인상(印象)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선정적(煽情的)’인 매체였다. 따라서 물리적 거리, 계급 혹은 민족으로 세분화되어 있는 각종 집단 사이의 경계를 넘어 거대하고 유일한 상상의 공동체인 ‘국민’을 창조하는 데 라디오는 적합한 매체로 인식되었다.

2) 만주전전의 설립과 라디오 방송의 전개

만주 지역에서의 최초의 라디오 방송은 일본의 조차지 관동주(關東州)에서 호출부호 JQAK로 시작되었다.¹²⁾ 1931년 만주사변이후 관동군은 관동주

11) 라디오 또한 엄밀하게는 방송국을 세우고 전기를 가설하며 각 가정에 수신기가 충분히 보급되는 등의 조건이 필요했으나, 신징에서 만주국 전체에 중계국 없이 전파를 송출할 수 있는 대출력 방송이 시작되고 전지식 라디오가 판매되면서 이론적으로는 만주국 전 지역에서 방송을 듣는 것이 가능해졌다.

12) 이때 내지에서는 토오쿄오(JOAK)와 나고야(JOCK)가 이미 정식 방송을 송출하고 있었

방송은 물론 동삼성의 방송국까지 장악하여, 본격적으로 군사 선전에 라디오를 이용하기 시작하였다. 만주국 건국 이후 방송의 중심은 수도 신징(新京)으로 옮겨갔으며, 1933년에는 ‘만주에 있어서의 일만합변통신사의 설립에 관한 협정’에 의해 만주전전이 설립되어 보다 전문적으로 라디오 방송 및 무선 통신 전반을 관리하게 되었다.

만주전전은 만주국과 일본이 협정에 따라 총 5천만엔을 투자하여 설립한 특수회사였다.¹³⁾ 이들은 만주국 홍보위원회 아래의 방송위원회의 지도를 받으며, 저가의 ‘전전형(電電型)’ 수신기를 개발하여 판매하고 각지로 서비스 요원을 투입하는 등 라디오 방송 보급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였다.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은 만주국 수립 이전부터 만철의 선전정책과 관동군의 철저한 통제 아래서 출발하였다. 정부는 각종 행정보조기관을 설치하여 라디오가 ‘만주국 전 판도를 향해 중앙부의 명령, 훈령, 지시를 철저하게 전달할 수 있도록 관리·통제하였다. 이는 대중매체에 대해 강력한 지도력을 발휘하고자 했던 만주국의 의지와 더불어, 출판이나 영화에 비해 방송이 전과 할당권을 가진 국가의 전면적인 지원 및 감독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매체 자체의 특성에서도 기인하는 측면이 있다.

이처럼 국가 차원에서의 지원 및 감시 체제를 토대로 전개되던 만주국

고, 오오사카(JOBK)는 시험방송을 마치고 본방송을 준비하는 단계였다. 또한 경성(JODK)에서는 1927년에 방송국이 개국하였고, 타이페이(JFAK)에서도 시험방송을 거쳐 1928년에 정식으로 라디오 방송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1920년대 중반은 일본 제국의 요지에 라디오 네트워크의 거점들이 정비되기 시작한 시기로 볼 수 있다.

- 13) 만주전전은 대자본의 국책기업 점령을 막기 위해 주식회사 방식으로 설립되어 인위적으로 자본이 분산되었다. 만주전전의 주식 1백만 주(株) 중에서 만주국 정부가 12만 주, 일본 정부가 33만 주를 소유하였고, 나머지 55만 주는 민간주로 공모하였다. 그러나 이 민간주도 사실상 그 대부분을 만주국 중앙은행(5만 주), 만철(10만 주), 미즈이(三井), 스미토모(住友), 미즈비시(三菱) 등의 제벌과 일본방송협회(30만 주) 등이 사들여 실제로 시장에서 공모된 주식은 약 10만 주에 지나지 않았다. 그러나 당시 내지와 만주국에서는 통신회사 설립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여 주당 약 50엔(圓)이었던 공모주에는 약 440만 건의 응모가 있었다. 1933, 『滿洲電信電話會社の持株』, 『滿洲評論』 4권 24호, 23쪽.

라디오 방송의 역사에서 1934년 신징에 100kw의 대출력 방송이 가능해진 것은 중요한 사건이었다. 만주 전역으로 중계 시설 없이 전파 송출이 가능해지면서 만주국이라는 단일한 지역을 상상할 수 있는 토대가 확립되었으며, 각 지역의 방송국과 연동하여 일본어와 기타 언어의 이중방송이 가능하게 되어 이전보다 많은 청취자의 확보가 기대되었다.¹⁴⁾



<그림 1> 1939년 만주국 및 관동주의 방송국 설치 현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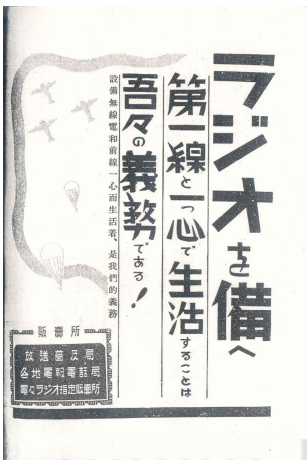
※ 출전 : 『滿洲放送年鑑』, 1939, 속표지.

14) 이 지도에 표시된 15개국 이외에도 통화(通化), 베이안(北安), 통안(東安), 순우(孫吳; 중계국), 치평(赤峰; 중계국), 안산(鞍山), 번시후(本溪湖), 우순(撫順), 지린(吉林), 싱안(興安), 후신(阜新)에 차례로 방송국이 건설되어, 1944년까지 총 26개 지역에 방송국이 설치되었다. 각 방송국의 출력 및 주파수 등은 1938 「滿洲放送施設一覽」, 『滿洲放送年鑑』, 키타야마 세츠로에 의한 해설 37~42쪽 참조.

1937년 중일전쟁이 시작되자 만주전전은 본격적으로 전시 체제에 돌입하였다. 이러한 전시체제는 1941년 미국과의 개전 이후에 더한층 강화되어, 1945년 방송이 끝을 맺을 때까지 계속되었다.

3. 만주국의 방송보급과 '만주문화'의 모색

라디오를 가장 효과적인 선전의 도구로 자리매김하기 위해 만주전전을 비롯한 방송주체가 해결해야 할 가장 큰 과제는 무엇보다도 '라디오를 듣게 하는 것'이었다. 특히 정부의 강력한 통제 아래 대내·대외적인 선전이 '국가 만들기'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던 만주국에서는 방송 보급사업이 더욱 특별한 의미를 가질 수 있었다. 이 장에서는 크게 수신기 보급의 문제와, 만주국에서 시도했던 다양한 언어로 된 방송, 대표적으로 중국어(滿語) 방송을 통해 '만주문화'라는 단일한 대중문화를 모색했던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그림 2> 만주전전의 라디오 청취 광고

※ 출전: 『電電』T1941년 8월호.



<그림 3> 전전형(電電型) 수신기 광고

※ 출전: 『電電』T1942년 7월호.

1) 만주전전의 청취자 확대 사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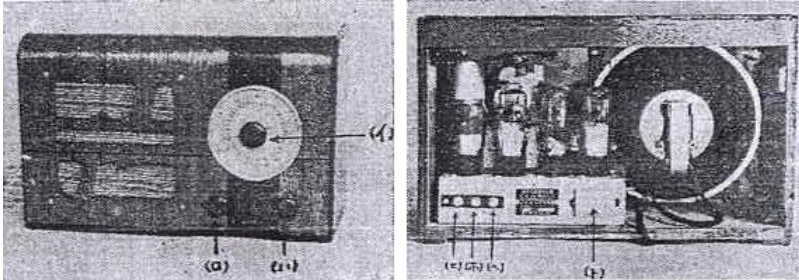
만주전전이 청취자의 수를 늘리기 위해 시행한 사업의 구체적 내용으로 는 수신기 판매, 청취료 징수 업무의 강화, 그리고 미신고 청취(無屆聽取) 및 청취계약 폐지의 방지 등을 들 수 있다.

수신기 보급은 선전전의 선결조건으로, 방송 ‘창업기’의 핵심적 사업으로 인식되었다. 만주전전이 청취자 수의 증가와 청취료 징수에 특히 힘을 쏟은 직접적인 이유로는, 먼저 방송의 영향력 확대를 위한 가장 기본적이고 직접적인 방법이라는 먼저 들 수 있다. 물론 단체청취를 비롯하여 청취계약 통제만으로는 파악할 수 없는 청취자 집단도 간과할 수 없으나, 라디오가 각 가정으로 보급되는 것은 미디어가 일상생활 공간으로 침투한다는 측면에서 중요한 문제였다. 또한 당시 수신료가 라디오 방송으로 얻을 수 있는 실질적인 수입의 거의 대부분을 차지했다는 점과, 청취율이나 만족도 등의 청취자 통계를 낼 수 없었던 시기에 수신기 구입 및 청취계약 건수가 만주전전의 역량을 드러낼 수 있는 가시적인 지표였기 때문에 만주전전이 방송보급 사업에 많은 역량을 기울였을 것이라는 추측도 가능하다.¹⁵⁾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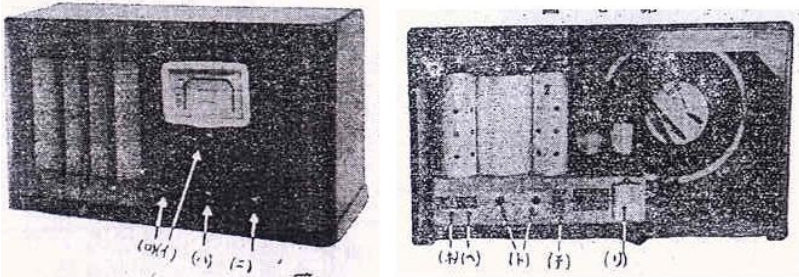
보급정책과 관련하여 만주전전이 1936년부터 시행했던 수신기 직판(直販)사업은 매우 흥미롭다. 만주의 경우는 국책 차원에서 만주전전이라는 독점 기업이 설치되어 방송사업을 주관하였기 때문에, 통일된 규격의 저렴한 보급형 수신기를 판매할 수 있는 조건이 갖추어져 있었다. 만주전전의 수신기 판매 촉진은 수신기에 대한 수요가 많은 봄·가을에 정기적으로 시행되었던 대규모 할인판매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15) 만주전전의 ‘전전형’ 수신기 판매는 1936년부터 시작되었는데, 초기에는 만주전전이 개발한 모델을 내지에서 생산하여 수입하는 방식으로 판매가 이루어졌다. 이후 1941년에 이르러 수신기의 핵심 부품인 진공관이 만주국에서도 생산되기 시작하고, 1942년에는 내지의 전기회사를 주주로 수신기 제조 회사가 만주에 설립되어 일부 수신기 모델의 자급이 가능해졌다.

<보급형 A11호>



<표준형 B12호>



<그림 4> 전전형 수신기 정면 및 내부 사진

※ 출처 : 『電電』 T941년 7월호, 1943년 3월호.

그러나 만주전전측의 설명에 의하면 사실 ‘전전형’ 수신기의 염가 판매는 만주전전 방송사업에서 적자의 가장 큰 원인이었다. 따라서 정기적으로 청취료를 납부하는 청취자를 확보하는 것이 중시되었다. 이에 만주전전은 수신기 직판과 더불어 만주전전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던 미신고 청취자 단속 및 계약 폐지의 방지에 힘을 기울였다. 만주전전의 자체 조사 결과 청취계약을 폐지하는 주요 원인 중 많은 경우가 수신기의 고장이나 잡음, 전파 문제와 같은 기술적 문제에 있었다. 이러한 라디오 영업소 및 방송국의 서비스를 통해 해결할 수 있는 수준이었고, 따라서 만주전전 내부에서도 청취자 확보를 위해 서비스를 개선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오고 있었다.

마지막으로 만주전전에서는 수신기 판매·수리·청취계약 등 방송사업 전 반을 홍보하기 하여 적극적으로 예비 청취자들과 접촉할 기회를 찾아나섰다. 대표적으로 청취자 30만명 돌파를 기념하여 기획된 방송자동차 ‘기린(麒麟)’과 ‘봉황(鳳凰)’의 운행과 1942년 대동아건설박람회 참가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각종 홍보 활동은 대부분 라디오의 보급률이 낮은 중국계(滿系) 주민 거주 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었으며, 만주전전이 개발한 염가 수신기도 ‘만인(滿人)대중에게 봉사’한다는 명목으로 제작된 것이었다. 이와 같이 중국계 주민들은 만주전전이 가장 관심을 기울인 잠재적 청취자 집단이었다.

처음부터 안정적인 보급률을 보였던 일계 청취자 집단과는 달리 방송 실시 초기 중국계 청취자들의 수신기 보급률은 극단적으로 낮았으며, 1937년 이후 중국계 청취자가 비약적으로 증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인구 대비 청취자의 비율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았다. 만주국 구성원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 주민은 ‘국민’으로 가장 먼저 포섭되어야 할 대상으로서, 이들 중국계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라디오 방송은 시행 초기부터 그 중요성이 여러 차례 강조되었다. 이들 언어를 달리하는 민족들을 포섭하는 동시에 감시한다는 측면에서, 방송이 (잠재적) 청취자들에게 얼마나 도달하는가는 중요한 문제였다.

2) 다언어 방송과 만주문화의 모색

『전전』이나 『선무월보』 등에서는 제2방송을 더 강화하여 중국계 주민들의 관심을 유도하고 지속적인 홍보 및 보급운동을 통해 중국계 청취자를 늘릴 것을 촉구하는 기사를 자주 볼 수 있다. 중국계 청취자들은 일계 청취자들에 비하여 라디오에 대한 인식 수준이 낮기 때문에 라디오를 오락의 측면에서 보는 경향이 강하며, 따라서 중국어방송은 교양보다는 오락을 중시하

는 전략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 있었다.

이 때문에 만주전전에서는 끊임없이 ‘만주의 독자적인 연예방송’을 확립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가 있었다. 여기서 만주의 연예방송을 확립한다는 것은, 일본인 이외의 청취자 유도 및 ‘만주문화’의 성립이라는 두 가지 측면에서 중요한 의의를 가지고 있었다.

특히 라디오는 청각을 매개로 하는 미디어이므로, 메시지가 수신자에게 전달되기 위해서는 양 측이 소통할 수 있는 언어가 전제되어야 했다. 다양한 민족 구성에 맞는 언어를 전파라는 한정된 공간 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하여 최대 다수의 청취자들을 만족시키는 것이야말로 ‘복합민족국가’ 만주국의 방송 정책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만주문화’를 확립하는 것이 라디오 방송의 중요한 과제였다.

‘만주문화’란, 다양한 언어로 대표되는 지역성(locality)를 아우르는 문화적 측면에서의 ‘대동아’의 축소판을 의미하는 것이기도 했다. 만주국은 국민국가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 구성원들의 다양한 문화를 아우르는 독자적인 대중문화를 만들어낼 필요가 있었다. 때문에 만주국은 국민들에게 일본어의 교육을 권장하면서도, 독립적인 근대국가로서 스스로의 문화를 주장하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중국어 및 기타 ‘오족(五族)’의 언어로 된 콘텐츠를 강화하고 끊임없이 만주의 독자적인 문화 요소를 찾아 나섰다. 따라서 일본어방송과 중국어방송, 그리고 일부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던 러시아어나 조선어 등 다양한 언어를 사용한 방송의 양상은 만주문화의 모색 과정을 보여주는 한 단면이 될 것이다.¹⁶⁾ 그러나 러시아인을 주요

16) 그러나 실제 만주국의 언어 판도에서는 ‘오족’의 언어가 평등하게 존재할 수 없었다. 야스다 토시아키(安田敏朗)가 지적하고 있듯이, 시간이 흐를수록 만주국을 포함한 일본 제국 안에서는 일본어를 정점으로 하는 언어의 위계질서가 확립되어 갔다. 이러한 위계질서 안에서 넓게는 대동아, 좁게는 만주국의 오족협화라는 이상이 근본적으로 갖는 균열이 표면에 드러난다. 그리고 이 균열은, 민족간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고

청취자로 상정하면서도 이들에게 장기적으로 일본 문화를 배양하고자 했던 하얼빈 방송의 예를 통해, 다양한 언어와 문화를 존중하되 이들을 하나로 묶는 ‘만주문화’의 근저에는 제국 질서가 깊이 각인되어 있었던 라디오 방송의 특징을 볼 수 있다.

한편 이와 같이 다양한 언어로 구성된 방송 중에서도 가장 중시되었던 것은 최대 다수의 언어인 중국어로 구성된 제2방송이었다. 제2방송은 『전전』 및 『선무월보』, 그리고 『만주방송연감』의 각종 논설에서 그 중요성이 크게 강조되고 있다.

그 중에서 주목할 만한 것이 바로 만주 전통음악 기록 사업이다. 방송국 녹음반의 활약으로 수집된 만주 지역 소수민족의 음악과 춤은 일본어 및 독 일어로 된 기록영화와 녹음반으로 제작되어 건국 10주년에 맞추어 제1집이 배포될 예정이었다. 결국 실제로 녹음반과 기록영화가 제작되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이나, 이러한 전통음악 기록 사업을 통해 다양하고 이국적인 문화를 섭렵한 새로운 ‘만주문화’를 창조하는 국가로서 스스로의 이미지를 만들어내고자 했던 만주국의 노력을 엿볼 수 있다.¹⁷⁾

있으면서도 표면상 동등한 결합을 추구하였던 ‘제국’의 본질적인 한계를 언어라는 측면을 통해 증명할 수 있는 지점이기도 하다. 安田敏朗, 1996, 『『王道樂土』と諸言語の地位 -『滿洲(滿洲國)』の言語政策試論-』, アジア政経學會, 『アジア研究』, 29~62쪽.

- 17) 비슷한 예로, 경성방송(JODK)에서 오락 프로그램에서 민요, 판소리, 아악 등 ‘조선음악’이 선호되었던 사례를 들 수 있다. 아악의 경우는 이왕직아악부를 중심으로 내지를 포함한 ‘전국’ 중계의 단골 레퍼토리로 방송되었으며, 향토 민요 발굴 사업 및 이를 이용한 프로그램 구성은 은 조선 총독부의 협조로 30년대 말까지 활발하게 이루어졌다. 서재길은 ‘내선일체’와 ‘황국신민화’ 등의 구호가 전면에 등장했던 시기에 오히려 조선음악이 활발하게 방송되었던 배경에는 첫째로 식민지 로컬리티를 호출하여 오리엔탈리즘적으로 재구성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특히 아악은 라디오 방송을 통해 대중화의 길을 걸으면서 궁중음악으로서의 신성성을 탈피하여 오리엔탈리즘적 시선 속에 존립하게 된 대표적인 사례가 될 수 있다. 그러나 서재길은 동시에 이러한 과정 속에는 전적으로 제국의 논리에 포섭되지 않는 식민지의 자기표상이라는 특징도 찾아볼 수 있다. 즉 식민지의 적극적인 자기표상 속에서 제국의 일방적 논리에 균열을 가져올 수 있는 이데올로기적 근거를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다. 단 만주 전통음악 기록 사업의 경우에는 전통음악을 발굴하고 기록하는 주체(방송국)와 전통음악 담지자(소수

그러나 위와 같은 노력에도 불구하고, 중국어방송과 중국계를 위한 방송 사업은 충분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던 것으로 보인다.¹⁸⁾

<표 1> 연도별 청취자 현황

연도	1933	1934	1935	1936	1937	1938	1939	1940	1941	1944
청취자수	7,995	12,386	19,764	41,202	88,876	127,417	225,889	340,291	454,835	570,690

※ 출전 : 『ラヂオ年鑑』, 1943, 279쪽; 北山節郎, 『『滿洲放送年鑑』解説』, 『滿洲放送年鑑』T939.
단위 : 명. 1944년(1월말 집계)을 제외하고는 매년 말 집계.

<표 2> 국적별 라디오 보급 현황(1938)

국적	청취자 수(명)	보급률(1000호당)
내지인	86217	570.7
만주인	35531	6.3
조선인	2559	13.3
외국인	1310	57.6
계	127417	20.3

※ 출전 : 『滿洲放送年鑑』, 1939, 141쪽.

이는 실무 차원에서 경험과 인력이 부족했기 때문기도 했으나, 보다 근본적으로는 대동아 공영권 내에서의 문화적 위계라는 이념적 측면에서 기인

민족) 사이의 거리가 조선의 경우보다 더 크다는 점을 간과할 수 없으나, 로컬리티의 호출을 통한 독자적 문화의 구성과 그 안에 담긴 제국 논리에 역행하는 힘의 가능성이라는 측면에서 조선의 사례는 주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서재길, 『1930년대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한중인문학회 19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2007년 11월.

18) 1940년 당시 라디오 수신 계약을 맺은 것은 만주국 전체 인구의 2.1%에 불과했으며 특히 중국계 청취자는 전체 중국계 인구의 0.7%에 그쳤다. 이 때문에 신징 우정관리국에서는 방송의 원활한 보급과 국민의 효율적인 조직화라는 두 가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수신기 대금부터 청취료에 이르기까지 모든 비용을 공동 부담하는 청취자 조합의 결성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山路一郎, 『放送聽取者組合の提唱』, 『宣撫月報』放送特輯號, 127~136쪽.

한 부분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대동아의 공통언어로서 일본어가 갖는 우월한 지위를 지키면서도 현지의 언어를 통해 지배 지역의 주민들에게 다가가야 한다는 모순은 다민족으로 구성된 제국의 최전선이었던 만주국이 끌어안아야 하는 모순이었다. 따라서 만주전전은 실질적으로 일본인 사원들에게 방송사업의 중추를 맡기면서도 패전 직전까지 만주 전통음악 조사 사업을 통해 ‘만주문화’를 모색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며, 중국계 주민들을 ‘만주문화’ 창출의 중요한 주체로서 포섭하고자 하였다.

‘만주문화’를 확립한다는 측면에서도,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복합민족국가에서 주도적 민족의 지위를 위협하지 않으면서 그들의 문화에서 분리된 독자적인 것을 만들어내기는 쉽지 않았다. 따라서 만주전전의 노력은 그들의 구호대로 ‘만주문화’를 확립한다기보다 ‘만주문화’를 모색하는 과정으로 끝나고 말았다고 볼 수 있다. 결국 단순한 문화 콘텐츠의 번역을 배제하면서도 일본 노래를 러시아 민요로 번역한 것이야말로 ‘하얼빈다운 방송’이라고 주장하던 모습이나, 현대적인 방송극(話劇)을 보급하려고 노력하면서도 결국 중국 전통연극(舊劇)을 배제하지는 못했던 중국어방송의 편성을 통해 당시 만주국이 만들어내고자 했던 ‘만주문화’의 한계를 엿볼 수 있다.

4. ‘대동아방송권(大東亞放送圈)¹⁹⁾과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

제국에서의 라디오 방송은 전과가 가진 동시성의 범위를 단일 지역이 아닌 제국 전체로 확대한다는 의미에서, 밖으로는 제국의 경계를 결정하고 안

19) 日本放送協會, 『ラヂオ年鑑』T943, 71쪽. ‘대동아방송권’이라는 용어는 만주국측 자료보다는 『ラヂオ年鑑』을 비롯한 내지의 방송관계자료에서 자주 찾아볼 수 있다. 따라서 이 개념은 식민지와의 위계질서를 전제로 하여 본국이 발신하는 제국 통합 논리의 일환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다.

으로는 그 구성원들을 통합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당시 구상되었던 방송 네트워크의 핵심은 일본·만주·화북(日滿華)을 중심으로 하는 동아중계방송(東亞中繼放送)이었으며, 여기에 전선의 확대에 따라 남양 지역의 방송설비가 완성되면 광대한 아시아 지역을 아우르는 대동아방송권이 실현될 예정이었다. 이처럼 동아중계방송을 근간으로 하는 대동아방송권 아래 ‘대동아’가 일치단결하는 것이 바로 방송전파를 통한 제국 실현의 이상이였다. 물론 ‘대동아의 일치단결’이란 모든 지역 혹은 민족간의 수평적인 단결이 아니라 일본(인)의 지도 아래 나머지 지역이 제국의 구성원으로 편입되는 형태였음은 말할 필요도 없다. 따라서 제국의 라디오 네트워크라는 측면에서 다른 지역과의 방송 교류는 제국 질서를 강조하는 동시에 ‘내지인(일본인)’에게는 통합을 지도하는 민족으로서의 위치를 확고히 한다는 두 가지 과제를 안고 있었다.

이 장에서는 방송전파의 동시성을 제국 전체로 확장한다는 측면에서 각 지역간의 방송교류는 그 실질적인 내용보다는 형식, 즉 방송을 한다는 것 자체에 더 큰 의미가 있다고 보고 있다. 매체의 특성상 라디오에서 발신되는 정보는 그 내용의 합리성이나 논리적인 설득력과 동시에 방송 자체가 주는 인상(印象)또한 대단히 중시되었다. 따라서 신체감각을 통해 제국을 ‘느끼게’ 한다는 점에서, 방송에서 어떤 내용을 들려주는가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는 다른 언어로 된 전파를 수신(듣는다)는 행위 자체에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 것이다.

1) 전파 네트워크의 구축: 연락·교환(交驛)방송

가. 일반연락방송과 일반교환방송

만주를 포함하는 방송 네트워크의 구상은 이미 만주국 설립 이전부터 실

행되고 있었다. 1931년 만주사변을 계기로 내지의 체신성과 관동군 사이에 단파를 이용한 중계방송 체계가 확립되었다. 이러한 ‘일만연락방송’은 만주전전이 설립되기 전까지 철도부속지역에 거주하는 일본인들과 본국(일본)의 심리적 거리를 좁히기 위한 장치로서 시작되었다. 이러한 일만간의 협력을 근간으로 만주전전이 설립된 이후에는 본격적으로 방송 네트워크를 구축하는 사업이 전개되었다.

만주전전이 설립되고 만주국의 방송이 자리를 잡아가면서, 일만연락방송은 일만교환방송으로 계승되었다. 만주국에서 내지로의 프로그램 송출도 많아진 한편 내지 프로그램의 직접 중계도 만주전전 설립 이후 오히려 증가하여, 이미 만주국의 일본어 방송 편성에는 빼놓을 수 없는 요소가 되어 있었다. 실제로 중일전쟁 발발을 전후한 시기에는 이미 제1방송의 50%가 내지 연락방송으로 이루어져 있었다. 이처럼 일만교환방송은 형식상으로는 상호 대등한 방송교류의 형태를 띠고 있었으나 사실상 내지 방송이 절대적으로 큰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만주국에서의 일만교환방송은 라디오를 통해 제국질서를 유지하는 근간이 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만화교환방송(滿華交換放送)

대내적인 방송보급사업에서 중국계 주민을 가장 주된 대상으로 삼았듯이, 대외적인 방송교류사업에서도 사실상 만주전전이 가장 힘을 기울였던 것은 화북 지역과의 교환방송이었다. 관동군의 화북 지배 구상에 따라 1937년 베이징에 ‘중화민국 임시정부’가 수립된 이래로, 화북 지역과 만주 지역 사이에서는 ‘새로운 사상에 따른 문화공작 중 가장 효과적’이라는 판단 아래 활발한 방송 교류가 시도되었다. 1937년에는 정례교환방송(定例交換放送)이 시작되었고, 그 외에도 각종 기념행사 등에서 축하 강연과 같은 프로그램이 정기적·비정기적으로 교환되었다. 내용 측면에서는 양국 정부의 성

과를 선전하는 강연이 주를 이루었던 만큼 청취자들에게 흥미로운 내용은 되지 못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에 반해 임시 교환방송 쪽은 음악과 구극 등을 중심으로 하여 훨씬 다양한 내용의 연예 프로그램이 교환되었다.

국내에서의 방송(보급)사업이 만주국 국민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중국계 주민들을 염두에 두고 이루어졌던 것처럼 방송교류 사업에서도 만(滿) 혹은 화(華)와의 소통은 크게 중시되었다. 중일전쟁 발발 이후 만주국은 장제스 정권에서 송출하는 선전방송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한편, 이에 대항하여 일본 제국의 영향력 아래 있는 ‘중화민국’ 정부의 소리를 전파에 실어 보냄으로써 중국계 주민들의 여론 악화를 막고자 하였다.²⁰⁾ 또한 대내적으로 방송 보급사업에서 중국계 주민을 ‘만주문화’의 중심에 두고자 하였듯이, 만화교환방송에서도 중국계에게 문화적 정통성의 중요한 부분을 맡기고자 하는 의도를 엿볼 수도 있다. 베이진 중심의 전통적인 문화를 발신하는 화(華)와 근대적인 문화를 소개하는 만(滿)의 교환방송은 이상적인 ‘대륙문화교류’의 한 예로 거론되었다.

다. 만선교환방송(滿鮮交換放送)

조선 지역의 방송과의 교류는 경성방송(JODK)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외지(外地)’끼리의 방송교류에 해당하는 만선교환방송은 제국의 통합이라는 관점에서 만주국 국내에서는 물론 내지에서도 관심의 대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만선교환방송의 초기 단계에서는 두 지역의 방송국이 프로그램을 직접 교환하기보다는 NHK의 편성 틀 안에 양국이 프로그램을 송출, 내지연락방송의 일환으로 만선 방송교류가 이루어졌으며, 1935년부터 1937년

20) 『滿洲放送年鑑』, 1939, 94쪽. 관동군과 일본 정부는 대륙의 ‘분지합작(分治合作)’ 방침에 따라 화북 지역에는 ‘중화민국 임시정부’, 점령 후 난징에는 ‘중화민국 유신정부’를 세우는 등 각 지역에 괴뢰 정권을 수립하였다. 만주국은 이 중에서 지리적으로도 가까운 화북의 ‘중화민국 임시정부’와 적극적으로 방송교류사업을 시행하였다.

중반까지는 일주일에 1회씩 만선정례교환방송을 통해 프로그램의 직접 교환이 이루어졌다.

편성표 등을 통해 교환방송의 내용을 살펴보면, 초기에는 강연 중심의 프로그램 교환이 이루어지다가 정례교환방송이 성립된 후에는 연예 프로그램(대중음악 및 전통음악, 드물게 라디오드라마 등)이 교환되는 경우가 많았던 듯하다. 그러나 만선교환방송은 조선인 인구가 많은 일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점차 만주국의 방송교류 안에서 우선순위를 부여받지 못하게 되었다.

2) 동아중계방송과 ‘대동아방송권’의 구상²¹⁾

중일전쟁 발발 이후 제창되기 시작한 ‘동아신질서’의 구호 아래, 방송사업은 국가와 국민을 서로 이어주는 강력한 심리적인 장치로서 정부 당국과의 긴밀한 연계 아래 전개되었다. 그러나 이들 ‘외지’끼리의 방송교류는 어디까지나 일본이 그 발신의 주체가 되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는 없다. 따라서 일본을 정점으로 하여 각 지역(외지 및 만주국, 남양 지역)들이 위계질서를 만들어 나가는 ‘동아신질서’를 고려하여 각 지역간 방송교류의 차원에서 그것이 어떻게 나타났는지를 고찰하는 것은 ‘대동아’의 영역이 크게 확대되는 아시아태평양전쟁 이후의 라디오 방송을 살펴보는 데 특히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제국의 전과 네트워크가 확장됨에 따라 1939년부터는 동아전기통신협회의 회(東亞電氣通信協議會)와 동아방송협회의 회(東亞放送協議會)가 설치되어 각 지역간의 전과 할당이나 통신시설의 확충, 물자의 배분 등과 같은 실무적인 사안이 논의되었다.

21) 이하 1943, 『ラヂオ年鑑』, 69~72쪽. 다만 1943년 이후의 라디오연감은 패전 후에 발간된 것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정리된 ‘대동아방송권’과 같은 용어의 정확한 맥락이나 정당성에 대해서는 더 많은 고찰이 필요할 것이다.

‘대동아전쟁’의 시작과 함께 ‘일·만·화의 호조(互助)와 연환(連環)’를 그 사명으로 하는 동아중계방송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동아중계방송은 기본적으로 내지의 방송(JOAK 도쿄 방송)이 그대로 동시에 제국 각지로 중계되는 형태였다. 내지의 구상에 따라 여기에 외지 및 만(滿)·화(華) 등으로부터 프로그램이 입중계(入中繼)됨으로써 비로소 동아중계방송이 완전한 형태를 갖추게 되었다. 동아중계방송을 통해 1941년 이전까지 지역 단위로 이루어졌던 방송교류사업이 NHK를 중심으로 하는 네트워크 아래 본격적으로 편입되었다. 물론 여기서 방송교류의 중심 언어는 (잠재적인) 제국 공통어인 일본어였고, 일본(인)은 언제나 대동아방송권의 근간이자 핵심이었다는 사실도 반드시 지적되어야 할 것이다. 그 대표적인 예로 1943년 1월 동아중계방송 <대동아의 봄(大東亞の春)>을 들 수 있다. NHK의 진행 아래서 조선, 만주, 대만 및 남양 각지에서 새해 인사와 자국의 풍경을 녹음한 레코드가 릴레이식으로 중계된 이 프로그램은 그대로 일본 민족을 중심으로 하는 ‘대동아공영권’의 이상이 전파 안에서 실현된 모습이었다.

‘대동아방송권’ 내에서의 방송교류는 실질적인 내용에 대한 고민보다는 어느 지역과 어떻게 교환방송이 이루어지는지가 중요한 문제가 되었다. 이 때문에 그 내용은 강연과 같은 형식적인 것들로 채워진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동아중계방송의 의미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청각과 흐름(flow)의 매체인 라디오의 특성 때문이었다. 앞에서도 지적하였듯이 라디오는 어떠한 경우에는 그 내용보다도 수신기에서 흘러나오는 소리 자체가 주는 인상이 크게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매체였다. 따라서 만주국에서 만주국의 방송전파를 통해 ‘대동아’의 다른 지역의 방송을 듣는다는 청취자의 행위 자체가 ‘대동아방송권’을 구성하는 데 빼놓을 수 없는 요소였던 것이다.

<표 3> 진주만 공습 이후 1942년 3월까지의 동아교환방송 입중계(入中繼) 내역

월	일	참가지역	출연자	제목
1940년 12월: 총 17회	10	팔라우		현지보고
	13	베이징	스즈키 요시유키(鈴木美通) 신민회(新民會) 최고 고문	결전으로 향하는 회복 민중의 결의
	16	신징	미야케 미츠하루(三宅光治) 협화회 중앙본부장	융성하는 외지 대륙의 목소리
		타이베이	토미타 유키오(富田悠紀男) 오오 사카마이니치신문 지국장	
		경성	미타라이 타즈오(御手洗振雄) 경성일보 사장	
	18	난징	왕정웨이(汪精衛) 주석	대동아전쟁에 대한 태도 천명의 연설
	19	상하이	카마다(鎌田) 중국방면 합대 보도부장	대동아전쟁과 상하이의 신정세(新情勢)
		난징	이와사키(岩崎) 중국과건군 보도부장	대동아전쟁과 지나파견군의 결의
	30	신징	무토 토미오(武藤富男) 만주국 홍보처장	대동아전쟁과 만주국
1942년 1월: 총 26회	1	도쿄	도죠 히데키(東條英機) 수상	일만화(日滿華) 연두 교환방송
		신징	장징웨이(張敬惠) 총리	
		난징	왕정웨이 주석	
	2	방콕	일본군 사령관, 피분송크랍 태국 수상	친선방송
	2	경성	미나미 지로(南次郎) 조선총독	연두의 사(辭)
		타이베이	하세가와 키요시(長谷川清) 타이완 총독	
		신징	우메즈 요시지로(梅津美治郎) 관동군 사령관	
	3			동아교환방송 '대동아의 봄' 참가 지역: 경성, 신징, 베이징, 장자커우 (張家口), 상하이, 난징, 팔라우, 방콕
	18	신징	관동군 보도대 녹음반	만소(滿蘇) 국경 진중(陣中) 녹음: 북방의 경비를 강조
	26			
25	타이베이		코레히도(Corregidor) 폭격 실황방송	
1942년 2월: 총 33회	6			일만이동방송 '만수절(萬壽節)을 축하합니다'
	12	방콕		전화에 의한 '싱가폴 함락의 반향'

월	일	참가지역	출연자	제목
1942년 2월: 총 33회	18	베이징 외 4개국		초등학교방송 '소국민의 기쁨'
	18		장징웨이 총리, 왕징웨이 주석	싱가폴 함락 축하 인사
	18			동아교환방송 '동아 각지의 전첩(戰捷) 소식' 참가 지역: 경성, 신징, 베이징, 장자커우, 상하이, 난징, 타이베이, 팔라우, 사이공, 방콕
1942년 3월: 총 21회	1		도조 히데키 수상, 장징웨이 총리	만주국 건국10주년 축하교환방송
	3	신징	무토 흥보처장	약진하는 만주의 모습
	8	신징	모리타(森田) 만주국통신사 이사장	대동아전쟁과 북방의 수호
	24	베이징	스즈키 신민회 최고고문	대동아전쟁 하(下) 회복의 결의
	26	난징	마에다(前田) 거류민단 참사회장(參事會長)	대동아전쟁 하 우리들의 결의
	22	신징	아이카와 요시스케(鮎川義介)	국민의 맹세
	26	신징	마스다 지로(増田次郎)	국민의 맹세
	30		도조 히데키 수상, 장징웨이 총리, 왕징웨이 주석	국민정부 환도(還都) 2주년 기념 일만화교 교환방송
			음악 일화(日華)교환방송	

※ 출전 : 1943, 『ラヂオ年鑑』, 71~73쪽.

5. 맺음말

본고에서는 ‘일본 제국 안에서의 만주국’을 시야에 두면서, 만주국의 대내적인 근대국가 만들기과 제국의 일원으로서 제국 만들기라는 두 방향의 힘 속에서 만주국의 라디오 방송을 검토하였다.

결과적으로 보았을 때, 만주국의 방송사업은 청취자 획득의 측면에서도, 제국 내 다른 지역과의 교류에서도 만주전전의 의도를 충분히 만족시킬 만한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그러나 만주국이 건국에서 붕괴까지 13년 남짓

의 시간밖에 주어지지 않았던 ‘과도기’ 국가였다는 사실을 염두에 두었을 때, 이러한 결과는 어느 정도 납득할 만한 것일 수도 있다. 당시의 방송기술의 한계는 차치하더라도 국내적으로는 충분히 ‘국민’을 포섭할만한 힘투력을 가진 시스템이 채 갖추어지지 못했고, 대외적으로도 본격적으로 ‘대동아 방송권’을 실현할 만큼의 견고한 네트워크가 충분히 형성되지는 못하였다.

다만 복합민족국가로서 일본 제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 있는 만주국에서 라디오 방송이 어떠한 가능성을 가졌었는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대중매체로서 가능한 한 많은 청취자를 확보해야 했던 만큼, 라디오 방송에서는 ‘만주문화’로 대표되는 복합민족국가의 통합의 가능성을 찾아볼 수 있었다. 여기서 통합이란 그 실체가 모호한 ‘만주문화’로의 균질화가 아니라, 다양한 집단의 정체성을 유지하면서 이들을 미디어의 공공영역으로 호출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만주국에서는 결과적으로 로컬리티의 강화보다는 단일한 국민국가로의 수렴이라는 방향성이 나타났다. 일본 제국 전체의 측면에서도 일본(인)을 정점으로 하는 질서 아래서 균질화된 아시아를 상상하는 데 그치고 말았다. 따라서 내부를 향한 국민국가적 통합과 제국의 중심을 향한 제국적 통합이라는 서로 다른 방향성이 충돌하며, 독립국가와 제국의 하위 구성원이라는 두 개의 아이덴티티 사이의 괴리는 결국 만주국이 끝까지 해결하지 못한 딜레마로 남고 말았다.

본고는 우선 만주국 라디오 방송의 실체를 밝히는 것을 1차적인 목표로 하였다. 그러나 동시에 송·수신자와 그들을 둘러싼 환경까지를 시야에 넣는 넓은 의미의 미디어사적 관점과 제국 일본이라는 배경을 염두에 두면서, 만주국이라는 특수한 공간에서 더욱 뚜렷하게 나타났던 제국 질서의 딜레마를 드러내는 지점으로서 라디오 산업을 보고자 하였다. 다시 말하면, ‘만주문화’로 대표되는 만주국의 독자성과 제국의 보편성과의 충돌이 라디오 방송을 둘러싸고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송신자(만주전

전), 수신자(청취자) 그리고 국가가 서로 뒤엎힌 만주국의 라디오라는 공간은 20세기 초 근대적 국민국가와 제국의 모순을 드러내는 한 단면이었다.

다만 본고에서는 한정된 사료로 인하여 방송 시행의 주체였던 만주국과 만주전전의 의지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는 점은 한계로 지적될 수밖에 없다. 이러한 부분은 향후 수용자의 존재에 초점을 맞춘 연구를 통해 균형을 맞추어나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더불어 실제로 방송 시간을 채웠던 콘텐츠에 대한 면밀한 분석을 통해 ‘만주문화’ 및 ‘대동아방송권’의 실체에 더욱 접근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參考文獻

1. 자료

- 『電電』(新京: 電電俱樂部(→電電一心會), 1941년 6월~1944년 8월
『滿州の電氣通信』(新京: 滿州電信電話株式會社), 1944년 9월~1945년 7월
『滿滿州放送年鑑』(新京: 滿州電信電話株式會社), 1939년~1940년
(北山節郎 解説, 日本植民地文化運動資料 10, 東京: 綠陰書房, 1997)
『宣撫月報』(新京: 中央宣撫小委員會(→國務院總務廳弘報處), 1937년 1월~1942년 5월
(山本武利 解説, 十五年戰爭極秘資料集 補卷25, 東京: 不二出版, 2006~2007)
- 『ラヂオ年鑑』(東京: 日本放送協會, 1931년~1947년(결호: 1939, 1944~46)
『放送』(東京: 日本放送協會), 1934년~1941년
『放送研究』(東京: 日本放送協會), 1941년~1942년
『滿洲國政府公報』(新京: 滿洲國國務院總務廳), 1933년~1945년
『滿洲國現勢』(新京: 滿洲國通信社, 1932~1943년(東京: クレス出版, 2000)
『滿洲年鑑』(奉天: 滿洲日日新聞社, 1937년~1945년
『滿洲國現勢』(新京: 滿洲國通信社, 1938년~1943년
『滿洲評論』(新京: 滿洲評論社, 1932년~1944년(橋樸 編, 『滿洲評論 復刻版』, 龍溪書舎, 1979)
『滿洲日日新聞』(新京: 滿洲日日新聞社, 1932~1944년(마이크로필름, 東京: 國立國會圖書館, 1983; 서울: 국사편찬위원회, 2005)
- 滿洲帝國政府 編, 1969, 『滿洲建國十年史』(明治百年史叢書 91, 東京: 原書房)
山本秀夫 編著, 1982, 『『滿洲評論』 解題·總目次』, 東京: 不二出版
吉田裕 監修, 1992, 『放送關係雜誌記事目錄』, 東京: 大空社
日本放送協會 編, 2001, 『20世紀放送史』,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日本放送協會 編, 2001, 『20世紀放送史 年表』,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日本放送協會 編, 2003, 『20世紀放送史 資料編』,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2. 연구논저

1) 단행본

강상중, 요시미 순야 지음, 임성모, 김경원 옮김, 2004, 『세계화의 원근법—새로운

- 공공공간을 찾아서, 서울: 이산
- 장준만, 2001, 『대중매체 이론과 사상』, 서울: 개마고원
- 고비아시 히데오 지음, 임성모 옮김, 2002, 『만철-일본제국의 싱크탱크』, 서울: 산처럼
- 나카무라 미츠오, 니시타니 게이치 외, 2007, 『태평양전쟁의 사상』, 서울: 이매진
- 마살 맥루한 지음, 박정규 옮김, 1997, 『미디어의 이해』, 서울: 커뮤니케이션북스
- 한석정, 2007, 『민주국 건국의 재해석: 괴뢰국의 국가효과』, 부산: 동아대학교 출판부
- 赤沢史朗·北川賢三 編, 1993, 『文化とファシズム』,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貴志俊彦, 川島眞, 孫安石, 2006, 『戦争・ラジオ・記憶』, 東京: 勉誠出版
- 黒田勇, 1999, 『ラジオ体操の誕生』, 東京: 青弓社
- 佐藤卓巳, 2002, 『「キング」の時代—国民大衆誌の公共性』, 東京: 岩波書店
- 佐藤卓巳, 2006, 『現代メディア史』, 東京: 岩波書店
- 植民地文化研究會, 2005, 『「満州国」文化細目』, 東京: 不二出版
- 竹山昭子, 2002, 『ラジオの時代』, 京都: 世界思想社
- 津金沢聡広 編, 1996, 『近代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東京: 同文館
- 津金沢聡広, 1998, 『戦時期日本のメディア・イベント』, 京都: 世界思想社
- 津金沢聡広·佐藤卓巳 編, 2003, 『廣報·廣告·プロパガンダ』, 京都: ミネルヴァ書房
- 西原和海, 2005, 『満洲國の文化』, 三鷹: せらび書房
- 日本放送協會, 1965, 『日本放送史』, 東京: 日本放送協會
- 松村高夫, 解學詩, 江田憲治 編, 2002, 『滿鐵勞動史の研究』, 東京: 日本經濟評論社
- 滿洲映畫協會 製作, 1995, 『滿州の記録—滿映フィルムに映された滿州—』, 東京: 集英社
- 御厨貴 編, 2004, 『時代の先覺者—後藤新平』, 東京: 藤原書店
- 山本武利 外, 2006, 『メディアのなかの「帝國」(岩波講座「帝國」日本の学知 4)』, 東京: 岩波書店
- 山本有造, 2007, 『滿州: 記憶と歴史』, 京都: 京都大学學術出版會
- 山室信一, 2004, 『キメラ—滿州国の肖像(増補版)』, 東京: 中央公論新社(야마무로 신이치 지음, 윤대석 옮김, 2009, 『키메라 만주국의 초상』, 서울: 소명출판)
- 山之内靖, 1995, 『總力戦と現代化』, 東京: 柏書房
- 吉見俊哉 編, 2002, 『一九三〇年代のメディアと身體』, 東京: 青弓社
- 吉見俊哉 外, 2002, 『拡大するモダニティ:1920-30年代 2(岩波講座 近代日本の文化史6)』, 東京: 岩波書店(국내 번역본)
- Barak Kushuner, 2006, *The Thought War: Japanese Imperial Propaganda*,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George L. Mosse, 1975, *The nationalization of the masses: political symbolism and mass movements in Germany from the Napoleonic wars through the Third Reich*, New York : Howard Fertig(조지 L. 모스 지음, 임지현, 김지혜 옮김, 『대중의 국민화-독일 대중은

어떻게 히틀러의 국민이 되었는가?』, 서울: 소나무, 2008.)

Gregory J. Kasza, 1988, *The State And the Mass Media in Japan, 1918-1945*,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1988.

James C. Scott, 1998, *Seeing Like A State : How Certain Schemes to Improve the Human Condition Have Failed*, New Haven: Yale University Press

Louise Young, 1998, *Japan's Total Empire : Manchuria and the Culture of Wartime Imperialism*, Berkeley: University of California Press

Prasenjit Duara, 2003, *Sovereignty and Authenticity: Manchukuo and the East Asian Modern*, Lanham :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프래신깃트 두아라 지음, 한석정 옮김, 『주권과 순수성: 만주국과 동아시아적 근대』, 파주: 나남)

2) 논문

- 김영희, 2002, 「일제 시기 라디오의 출현과 청취자」, 『한국언론학보』, 46권 2호
- 서재길, 2007, 「1930년대 후반 라디오 예술과 전통의 문제」, 『전통문화의 현대적 변용(한중인문학회 19회 전국학술대회 자료집)』
- 서재길, 2006, 「일제 식민지기 라디오 방송과 '식민지 근대성」, 국제한국문학문화학회, 『사이/間/SAI』~창간호
- 서재길, 2006, 「일제 말기 방송문예와 대일 협력」, 민족문화사학회, 『민족문화사연구』~32호
- 서재길, 2007, 「'제국'의 전파 네트워크와 만주의 라디오 방송」, 동국대학교 한문학연구소, 『한국문학연구』~제33집
- 엄현섭, 2007, 「『라디오 년감(年鑑)』에 나타난 식민지기(植民地期) 위안방송(慰安放送)과 그 성격」, 한국비교문학회, 『비교문학』~Vol.43
- 임성모, 1997, 「만주국협화회의 총력전체제 구상 연구」 연세대학교, 사학과 박사학위논문
-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日滿一體'와 '鮮滿一如'의 갈등—」, 『역사학보』~제201집
- 한석정, 2005, 「고도 모더니스트(High Modernist) 국가의 확산: 만주국에서 한국」, 한일 간에 있어서 문화교류와 경계(한국일어일문학회 국제심포지엄) 발표문(2005. 10. 22)
- 홍수경, 2007, 「만주국의 사상전과 만주영화협회, 1937~45」, 연세대학교 사학과 석사학위논문, 川島眞, 2003, 「滿州国とラジオ」, 『アジア遊学』~54
- 川瀬千春, 1999, 「『滿州国』と国策宣伝の年画」, 中国研究所, 『中国研究月報』~Vol 53 No.1

- 駒込武, 2000, 「『帝國史』研究の射程」, 『日本史研究』~452
- 佐藤純子, 2001, 「同盟情報圏形成期の満州国通信社」, 『日本歴史』~635
- 武田徹, 「後藤新平と放送の公共性」, 『環(特輯: 世界の後藤新平/後藤新平の世界)』~vol.29,
- 橋本雄一, 1998, 「声の勢力版図—「関東州」大連放送局と『滿洲ラヂオ新聞』の連携—」, 『朱夏』~第11号(特集「内と外のジャーナリズム」)
- 安井三吉, 1978, 「日本帝國主義とカイライ政權」, 野澤豊, 田中正俊 編, 『講座中國近現代史 6』,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 安田敏明, 1996, 「『王道樂土』と諸言語の地位-『滿洲』の言語政策試論」, アジア政経学会, 『アジア研究』
- 山口誠, 2004, 「ラジオ放送の出現と1920年代の社會」, 有山輝雄, 竹山昭子 編, 『メディア史を學ぶ人のために』, 京都: 世界思想社

■Abstract ■

Propaganda Warfare and Radio Broadcasting in Manchukuo

Kang, Hui-Joo

This study is an attempt to analyze development and meaning of radio broadcasting in terms of Manchukuo's formation of nation-state and enforcement of imperial regime. In 20th century, radio has contributed in creating nationhood under state's control. Radio was popular also in Manchukuo as a way to create 'Manchurian' who had contradictory identities as a submember of Japan empire and citizen of independent country. Therefore, radio industry in Manchukuo is an important example of state and empire's logic penetrating into people's daily lives and artificially constructing national identity.

History of propaganda in Manchukuo starts with information gathering and publicizing with the purpose of stabilizing domination over railway and surrounding areas in times of South Manchuria Railway Corporation. Manchukuo, an independent state established in 1932, focused on international and domestic propaganda activities in order to eliminate impression of puppet state and to re-confirm legitimacy as authentic nation-state. Especially in the Sino-Japanese War period, producing nationhood to support total war became urgent. Manchukuo then took notice of radio in terms of its signal's synchronicity and crossability of border which overcomes regional and class boundaries.

Radio broadcasting in Manchuria began in the Kwantung Leased Territory(關東州), and after Manchukuo was established, the system moved to the capital Xinjing(新京). In 1933, the state-run company, Manchuria Telegram and Telephone Corporation, or MTT, was established and broadcasting industry got into its stride. 100kW output broadcasting station was constructed in Xinjing

that could link whole Manchukuo and Kwantung Leased Territory which enabled dual language broadcasting in Chinese, etc. and Japanese. Based on these technological developments and Manchukuo government's guidance, MTT began creating and transmitting programs while supplying receivers.

Receivers should be provided in order for the radios to operate as instrument of propaganda. MTT enthusiastically supplied receivers, developing MTT-Type Receiver and selling it by themselves at a reasonable price, hoping to increase listening population. MTT's radio supplying project was a kind of 'nation-building' project that indicated state's boundary and enhanced unity among state members.

The main target of radio supplying project was Chinese citizens which made up most of the population. The broadcasters showed deep interest in Chinese citizens because they had the most (potential) listeners and were supposed to be the leading force of 'Manchurian Culture'. 'Manchurian Culture' was an unique mass culture that Manchukuo needed for its identity as an independent state. It should straddle various races that make up Manchukuo but should also be different from Japanese or Chinese culture. MTT focused on producing Chinese programs and devised a multi-lingual broadcasting policy to use Russian, Korean etc. in each region in order to realize 'Manchurian Culture' through radio wave. MTT also tried to seek 'something Manchurian' that constitute 'Manchurian Culture' through traditional music recording project. However it was difficult to create independent culture without threatening Japanese culture, the culture of leading group, in Manchukuo which is the multi-racial country. Rather, seeking 'Manchurian Culture' became a good example of independent country Manchukuo's dilemma that exists within imperial regime.

While radio supplying project was inwardly a 'nation-building' project, bilateral project between colonies such as Korea, Taiwan, and puppet governments in North China was outwardly a 'empire-building' project since it tries to express dynamics of the imperialism through hearing. MTT's broadcasting exchange industry had two issues; to sensually make listeners aware of empire Japan's territory, and to reconfirm Japan(ese) as leading race of Imperial Japan. Before

1941, there were active exchange of broadcast among Japan, North China and Korea. The regular exchanged-programs were mostly lecture programs but temporary exchanged-programs often consist of entertainment programs. Also, while radio supplying project was emphasized in terms of 'seeking of Manchurian Culture', broadcasting exchange industry emphasized interaction with governments in North China.

After 1941 when Aisa-Pacific War was intensified, 'Greater East Asian Broadcasting Sphere(大東亞放送圈)', the network which connects all parts of Imperial Japan, was designed. It includes colonies and South Pacific Mandate based on linkage among Japan-Manchuria-North China, focusing on exchanging programs as well as technological cooperation under control of Mainland Japan. MTT participated in East Asian Electric Communication Council(東亞電氣通信協議會) and East Asian Broadcasting Exchanges(東亞交換放送) led by NHK(日本放送協會) as a member of 'Greater East Asian Broadcasting Sphere'. East Asian Broadcasting Exchanges, which actively took place after the attack of Pearl Harbor, propagandizes each regions linkage and cooperation while confirming Japan's existence at the top of the network. Though its purpose wasn't realized due to time and technological limits, 'Greater East Asian Broadcasting Sphere' is an fulfilled image of 'East Asian New Order(東亞新秩序)' in terms of radio wave.

In view of the results, radio broadcasting in Manchukuo was not fully productive in both inward supplying project and outward exchange project till the defeat of Asia Pacific War. However, if we consider potential of radio broadcasting in Manchukuo, which is multi-racial state as well as the microcosm of Imperial Japan, we could get a sense of contradiction of nation-state and empire in the first half of 20th Century, through interaction among the sender(MTT), audience and the state in radio broadcasting in Manchukuo.

key words : Manchukuo, Radio Broadcasting, Manchuria Telegram and Telephone Corporation, Propaganda Warfare, Total War, Dual Language Broadcasting, Manchurian Culture, East Asian Broadcasting Exchanges, Greater East Asian Broadcasting Sphere.